

도교육청 - 전북교총 교육활동 보호 합의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등 11개 안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중)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11명의 도교육청 위원과 이기

중 회장 등 10명의 전북교총 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예비 교섭·협의회 및 도교육청 각 과별 실무 교섭·협의회 등을 거쳐 6개 안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 △도교육청 이동학대 사례 관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번 합의문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추후 합의를 발간해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합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중)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감염병 업무담당자 위기대응 역량 강화

도교육청, 전북대 간호대학서 연수... 이론·실전 병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전북대 간호대학에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업무담당자 위기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이론 교육과 실전 모의 훈련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북대 의대 이주형 교수가 전라북도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주요 감염병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고, 전북대 간호대 김희선 교수는 A형 간염 및 신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에 참

여한 대표교사들이 지역의 학교에 전달 연수를 실시, 모든 학교에서 상시 감염병 대응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학생과 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전경

JBNU BK21 학술 전자정보 박람회

전북대 중앙도서관, 14일
전문가 참여 교수·학생
전자자료 활용능력 제고
논문작성법 주제 특강도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이준영)은 오는 14일 2023 JBNU BK21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교보문고와 누리미디어, 엘스비어, 엠스코 등 15개 국내의 우수 전자정보 DB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르면 참가 업체들은 이날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각각 부스를 설치, 박람회 참가자들은 각 부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지원의 일환으로 엠스코 코리아 장지호 강사가 '내 논문 및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서관 통합검색 활용 교육'을, 오후 2시부터 브레인 pH.D 권재기 박사가 '논문작성법 실전-논문글쓰기, 연구계획서 작성법'을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이준영 도서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학술 자료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식의 교류와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해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교육청 학생의회는 8일 제2회 정기회를 개최를 열고, 임시회(분과협의회)를 통해 상정된 분과별 정책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학교별 진로프로그램 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

전북학생의회 제2회 정기회...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교내 야외조명 설치 지원 등 상정

전북도교육청 학생의회(의장 최현호)는 8일 제2회 정기회를 개최를 열고, 임시회(분과협의회)를 통해 상정된 분과별 정책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기회 상정된 안건은 △진로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 △교내 야외조명(가로등) 설치 지원이다. 이날 열린 제2회 정기회는 서거석 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난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이행 상황 보고 안건 심의 및 표결 순으로 진행했다. 진로 체험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은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별 진로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자치 연합 워크숍 운영은 2024년 학생자치 활성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주관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내 야외조명(가로등) 설치 지원은 학생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설치 및 수선이 필요한 경우 2024년 관련 예산을 반영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지수진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엿보여 앞으로 발전해 나갈 전북교육의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첫 의정활동을 제1 학생의회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도 전북교육을 빛내는 찬란

한 별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학생의장은 "지난 상반기 학생의회의 활동들이 되짚어보며 오직 학생 오직 정책이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남은 임기도 전라북도 학생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그간 임시회 정기회, 워크숍 정담회 등 전북학생의회의 활동을 지켜보며, 우리 학생들의 자질과 역량이 매우 뛰어나구나 새삼 확인하고 있다"면서 "정기회에서 학생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해 나갈 전북교육의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첫 의정활동을 제1 학생의회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도 전북교육을 빛내는 찬란

RISE 체계 준비 소통 강화

우석대 '지·산·학 포럼' 진행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산·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라북도 LINC 3.0 사업 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주관했다. 포럼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라북도 JB지산협력단, 전라북도 LINC 3.0 사업단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지영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사무관의 기조 발제와 지자체 연계 산학연 협력사업 사례 발표, 지자체-LINC 3.0 대학 간담회 등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LINC 3.0 참여 대학 간 RISE 체계 준비에 대한 소통 강화와 대학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또한 지자체 연계 산학연 협력사업 사례 발표에서는 인력양성과 기업지원, 공유협력 등 지자체-LINC 3.0 참여 대학 간 연계·협업의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은 "향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따른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 그리고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보다 현장감 있는 의견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남천현 총장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채용 연계형 'GUCCI beSTAR' 진행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는 최근 글로벌 패션기업 (주)GUCCI Korea와 채용 연계 beSTA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UCCI beSTAR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적성에 따른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졸업 후 채용까지 연계되는 산학교육프로그램이다. 4명의 인사업 담당자가 전주대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이력서를 작성해 보고 AI 인터뷰 활동을 통한 실제 채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패션산업학과 학생 외 중국어중국학과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특정 학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 기업과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가진 전주대학교 4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기업 담당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제 코리아 인사업 김수연 이사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줘 매우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취업 기회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패션산업학과는 (주)GUCCI Korea와 매년 정기적으로 beSTAR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을 공동 선발·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7일 현지에서 중국 상하이 박세 자동차 직업기술양성 학교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중 상하이 박세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7일 현지에서 중국 상하이 박세 자동차 직업기술양성 학교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병훈 총장, 박경민 입학관리처장,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이상락 국제교류 팀장, 중국 상하이 박세 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중국 상해 사무소소장 정순택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전주비전대학은 중국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병훈 총장은 "중국 상하이 박세 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를 통해 비전대에 입학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에는 현재 10개 국가 60여 명의 유학생들이 어학연수 과정 및 본과에 재학중이다. /정은성 기자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선정기업 투자유치 기회 마련

전북지역 연합 IR 매칭 컨퍼런스 성료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지난 7일 2023 전북지역 연합 IR 매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희망전북 POST-BI,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소속 33개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주)뽕농 등이 투자확약 체결을 맺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번 IR 프로그램에서 투자확약을 체결한 창업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전라북도 창업대전에서 투자확약 IR 피칭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미래 과학도 육성 맞춤형 교육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흥찬)은 도내 초·중등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생물학, 지질학, IT융합(스마트팜) 등 4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린 견학 활동 등을 통해 과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도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이리백제초등학교 이연희 교사는 수학 분야에서 상호지구조의 매칭성과 중심분할 정다면체에 대해 지도했다. 또 생물 분야에서는 40년간 18종의 민물고기 연구를 통해 물고기 박사 로

알려진 김인수 명예교수(전북대 생물학과)가 잔주전 생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질 분야에서는 전주 지질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오창환 명예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가, IT융합분야에서는 전북대 SW중심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식물재배기를 활용한 스마트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교육했다. 손흥찬 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과학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